

클라시쿠스(문)

욕망과 비밀, 두 관계에 대하여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중심으로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비밀과 욕망 그 사이

III. 맺는말

<참고문헌>

I. 들어가는 말

비밀과 욕망. 두 단어는 서로 다르지만 닮아있다. 어쩌면 닮아있다는 말보다도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서는 두 단어를 가진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비밀'은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다.¹ 뜻풀이에 나와 있듯 '어떤 이가 말하는가?'에 해당하는 화자가 드러나 있지 않다.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지는 결국 화자가 판단하게 된다. 즉,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 혹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욕구, 욕망에 따라 비밀이 결정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또한 무언가를 이루고자, 혹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나 욕망도 존재한다. 흔히 이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와 같은 작품상에서 예시를 잘 찾아볼 수 있다. 탄생의 비밀이나 신분의 비밀 같은 경우가 되겠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건강상의 비밀이라든지, 식습관 등의 비밀을 예시로 들 수 있겠다. 개인적인 이유라면 전자에 말한 이유겠다. 하지만 단체적인 비밀은 어떨까? 예를 들면 정부나 기업, 단체의 문제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아직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채 비밀문서로 남아있다. 국가적인 비밀들이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다. 두 사항 모두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숨기는 것에는 차이점이 없다.

비밀은 욕망과 어떻게 묶여있는지 생각해볼 것이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서 둘러싸인 비밀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어떤 욕망이 그런 비밀을 만들게 했는지 설명해보겠다.

II. 비밀과 욕망 그 사이

조지 오웰이 표현한 1984년의 장래는 어둡다. 어둡다는 표현이 추상적일지도 모르겠다.

¹ 『비밀』,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7bc5d43de5241908e2d521e17598c40>, (2022.06.28.

접속)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다. 소설의 첫 장부터 어두운 모습이 현실적으로 등장하는데, 윈스턴이 거주하는 곳의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증오 주간'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절약한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엘리베이터부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탈 수 없다. 증오 주관을 준비한다는 명목을 제외한다면 평양의 도심의 엘리베이터가 생각났다.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었다.² 텔레스크린들은 항상 당원들을 감시하고 있다. 감시의 기능과 당과 국가의 선전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된다. 감시의 기능만 보서는 마치 현시대의 CCTV를 연상케 하는데, 업주들이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이용하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만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³ 소설 속에서는 윈스턴이 과연 자신을 텔레스크린으로 감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는 장면이 여럿 등장한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중압감을 전달하는 역할이자, 주인공의 체제에 대한 욕망이 불타오르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반대로 체제에 순응하게 하는 오브제이기도 하다.

어두운 현실 속 가장 핵심은 '빅 브라더'라고 할 수 있겠다. 빅 브라더는 윈스턴이 사는 오세아니아에서 당이 내세운 인물이다. 모든 곳에는 그의 얼굴이 붙어있다. 독재자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감시자의 느낌도 있는 인물이다. 책에서는 그를 피라미드의 정점이라고 말한다. 아무런 결점 없이 완벽한 존재. 모든 걸 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존재. 모든 것의 원천이다.⁴ 소설 속 등장하는 빅 브라더는 실존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남긴다. 빅 브라더는

² 임병선, "평양 80층 아파트 입주에 탈북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평화연구소>, 2022.04.16, <https://peacemaker.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16500065>, (2022.06.28. 접속)

³ 전해원, 김병언, 곽지영, "매장·사무실에서 CCTV로 직원 감시, 불법일까 아닐까... 개인정보 보호법 어떻게 돼 있나", <법률방송뉴스>, 2019.05.16,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3>, (2022.06.28. 접속)

⁴ 조지 오웰, 『1984년』, 권진아, 서울:중앙문화사, 2012, p.270

당의 통치를 대표하는 일명 엠블럼, 상징물에 가깝다. 말 그대로 '통치'를 위한 국가, 혹은 당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생존에 대한 문제도 비밀에 부친 점을 생각하면 정말 비밀의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이 존재는 당과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욕망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빅 브라더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군주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다. 당장 영국이나 일본만 해도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군주는 과거처럼 통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실권도 거의 없으나, 국민들의 정치적인 지지, 또 정치적인 영향력은 남아있는 형태들이다. 소설 속에서 내부 당원들과 프롤들의 정치적인 지지(사실 실제적인 지지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와 당을 컨트롤하는 실제적인 권력이 있다면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신어는 말 그대로 새로운 언어다. 당이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언어체계, 즉 국민들에게 주어진 비밀이다. 통치하겠다는 욕망에서 이루어졌다. 쉽게 설명하자면, 섬세함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노르스름하다",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등의 말을 모두 "노란색이다" 정도의 말로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복합적인 의미, 즉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를 제한하면서 사고의 확장을 제한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 더 깊은 사고를 막고 국민들을 더 쉽게 통치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한 비밀이 되어버린 것이다.

소설 속에서는 윈스턴이 줄리아와 관계를 맺고 체제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그 결과 윈스턴과 줄리아는 체포된다. 사상죄라는 명목으로 윈스턴은 오세아니아의 일개의 국민으로서 고문받게 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보안법'이 소설 속의 사상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두 법이 기초로 하는 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르겠지만, 사회가 추구하는 사상의 문제와 달라 처벌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1948년에 처음 제정된 이 법은 '반공'이란 이유로 악명높은 법이 되었다. 영화 <변호인>, <1987> 등에서 이 법을 잘못 적용해 재판받는 많은 민주 열사들의 재현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영화 속에서 잘못 적용한 사례도 정부가 만든 비밀이자, 고위층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III. 맺는말

비밀과 욕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쩌면 『1984년』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들, 예를 들어 사회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감정을 통제당하고, 신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모습들은 사회 지도층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은, 다행히 조지 오웰이 예측한 것이 현실이 되진 않았으나, 비슷한 면모들도 조금씩 가지고 있다. 현재는 소셜처럼 텔레스크린이라는 정부(국가)가 감시만을 위한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여러 기기의 마이크를 통해 우리의 대화를 인식하거나, 검색하는 기록들, 시청하는 영상 등 우리의 일상을 관찰하고 분석해 광고를 내보낸다. 당장은 국가가 아닌 사기업이지만,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지는 사실 알 수도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 등 권력기관과 여론이 이 문제를 집중하고 있다.⁵

우리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 즉 욕구로서의 비밀은 생길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욕망으로서의 비밀은 필연적이다. ‘숨긴다.’, ‘알리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붙어서다. 『1984년』에서도 윈스턴이 결국 사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고문받고, 자신의 비밀이 까발려지는 과정을 겪는다. 윈스턴과 같은 당원들의 비밀은 보호해주지 않고, 사회 지도층이 국가, 혹은당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비밀을 지키는 것이다. 그는 빅 브라더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더 큰 비밀 또한 가지게 되었다.

욕구와 욕망은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다. 오히려 그 둘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삶은 의욕적이지 못하고 이유를 찾는데 혈안이 될 뿐이다. 하지만 지나친 욕망은

⁵ 김민서, “국정원 ‘文정부때 국정원 적폐청산’ 감찰한다”, <조선일보>, 2022.06.2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6/25/F5RWNGJN6FBH7GPYXSEFLXDS54/ (2022.06.28. 접속)

우리가 왜 존재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을만한 비밀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세 가지의 적절한 균형은 우리 삶을 자기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힘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 조지 오웰.(2012). 『1984년』.(권진아, 역).서울:(주)을유문화사.(원서출판 1948).
- 이희은.(2014).관찰 혹은 자발적 감시.한국방송학보,28(2),211-248.
- 김용민. (2013). 입헌군주제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17(3), 109-130.
- 『비밀』,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7bc5d43de5241908e2d521e17598c40>, (2022.06.28.
접속)
- 김민서, "국정원 '文정부때 국정원 적폐청산' 감찰한다", <조선일보>, 2022.06.2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6/25/F5RWNGJN6FBH7GPYXSEFLXDS54/ (2022.06.28. 접속)
- 전해원, 김병언, 곽지영, "매장·사무실에서 CCTV로 직원 감시, 불법일까 아닐까... 개인정보 보호법 어떻게 돼 있나", <법률방송뉴스>, 2019.05.16,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3>, (2022.06.28. 접속)
- 임병선, "평양 80층 아파트 입주에 탈북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평화연구소>, 2022.04.16, <https://peacemaker.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16500065> ,
(2022.06.28. 접속)